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4.19.(금) 10:30, 김인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조금 전 9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통일담론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했습니다.

통일부 차관은 별도 일정 없이 부 내에서 통상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김선경 부상, 외무성 부상 담화에서 그린필드 방한·방일을 두고 '맥 빠진 대북제재 활기 불어넣으려는 비루한 구걸 행각이다.'라는 등 비판을 가했는데요.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 등 국제규범을 훼손하는 북한의 행태와 관련한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에 대한 북한의 이와 같은 민감한 반응은 새롭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은 다른 국가의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수많은 규탄과 대북제재에 둘러싸인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북한이 애국가를 '공화국 국가'라는 명칭으로 바꿨다는 언론 보도 나왔는데요. 저번에 애국가 가사 중에 '삼천리'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의미 부여를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보도를 보았으며 사실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의도와 평가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향후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단하시지 않는다 했지만 여러 언론에서는 북한이 '2국가,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가적인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최근에 여기 통일부 정책관을 사칭해서 해킹 메일이 온

다,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북한 사이버 공격 그런 추이라든지 동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사이버 공격 대응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긴밀한 협조 아래 통일사이버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가동하여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을 차단·방어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본인 인증 유도 등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링크 버튼, 첨부 클릭 등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안 관제를 바탕으로 더욱 전문화·지능화되는 북한 등 외부 사이버 위협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개인들도 상용메일에 대한 해킹 의심과 함께 메일 주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개별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